

창조의 역사와 비전이 한 자리에 모인 「발명인의 전당」 개관

- 우리 선조들의 발명무기 시연회도 가져 -

21세기 창조의 시대를 맞아 발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창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기리는 「발명인의 전당」 개관식 및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발명무기 시연회가 '99. 5. 26(수) 11:0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등 주요 인사(예정)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천년간 우리 선조들의 발명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창조인의 명예를 드높이며, 21세기 새로운 창조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발명인의 전당」(Korean Inventors Hall of Fame)이 개관되었다.

이번에 개관한 「발명인의 전당」은 크게 명예의 전당, 역사관, 전시관 및 미래관 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은 우리의 창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명품으로 양부일구, 거중기 등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과 국산품1호, 현대 첨단발명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발전의 핵심인 특허와 발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형물과 「발명인의 전당」의 모토인 “창조의 세계”를 지향하는 상징조형물도 설치되어 있다.

발명인의 전당의 주요 전시내용을 보면, 먼저

그 도입부에 있는 현판 “발명인의 전당, 發明人之殿堂”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시고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글씨체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의 글씨체를 각각 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창조물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발명인의 전당」 제 1관인 「명예의 전당」 중 “우리의 위대한 창조인 코너”에서는 전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음양오행과 천지창조의 근원인 금(金), 토(土), 화(火), 목(木), 수(水)를 상징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낸 조형물을 설치하여 창조의 영예와 그 기운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000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빛내고 과학발전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의 10대 창조인을 한자리에 모시는 장(場)을 마련하여 그

업적과 명예를 기리고 있다.

이 자리에 현재 모셔진 창조인은 감오경장이 전 1,0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창조의 업적이 검증된 세종대왕, 장영실, 이순신, 정약용, 지석영 등 5인과 감오경장 이후 과학발전과 국가발전에 공헌한 창조인으로 우장춘, 공병우 2인으로 총 7인을 동(銅) 흉상부조로 현액하고 있다.

그리고 10인 중 나머지 3인의 창조인은 각 학계, 노동계, 발명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중 경영관리 혁신부문, 발명·기술혁신부문, 교육서비스 훈련부분별로 각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10인의 후보자 중에서 관람객의 직접투표와 인터넷을 통하여 각 1명씩을 선정하여 2000년 5월 19일(발명인의 날)에 현액할 예정이다. 또한, 발명대왕코너는 작년부터 매년 발명의 날에 선정하는 올해의 최고 발명가인 발명대왕(2명)의 사진과 공적을 전시하였다.

※ 현액된 우리의 위대한 창조인(10인)

창조인	주요업적
1. 세종대왕	한글창제, 금속활자 제작
2. 장영실	앙부일구, 자격루 등 제작
3. 이순신	거북선(세계최초철갑선)제작
4. 정약용	배다 준공 기증가설 이용 수원성 축조
5. 지석영	한국 최초 종두법 실시 전매특허권 실시 상소
6. 우장춘	겉꽃피튜니아 육종 다윈의 진화론 수정
7. 공병우	한글타자기 발명(1949)
8. ?	
9. ?	
10. ?	

※ 발명대왕: 1. '98년 유태경(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 발명)
2. '99년 배상만(DRAM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반도체 소자 사진공정마진검사방법등 개발)

제2관인 「역사관」 “밀레니엄발명사”에서는 태초부터 현대까지 인류문명사의 전환점과 큰 과급효과를 불러일으킨 발명에 관한 역사(年代記)를 소개하고, 인류생활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친 나침반, 기계식계산기, 총, 금속활자, 금속활판, 베이글(빵), 전구, 인공위성, 복제양 등 10대 발명품도 패널과 함께 별도 전시하고 있다.

또한 훈민정음, 거중기, 앙부일구 등 선조들의 발명품을 전시하고, 특히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혁명을 일으킨 금속활자의 제작과정을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하는 금속활자 홀로그램판(매직미전)과 최초 해시계인 앙부일구의 역사 활용도 등을 영상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선조들의 과학성과 그 우수성을 느끼게 하는 앙부일구영상판을 마련하였다.

현대사에서 국민들과 더불어 삶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해 온 국산1호 전시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주, 샘표간장, 검정고무신, 고약, 시발자동차(모형), 벼(통일, 일품), 금성라디오, 말표 이쁜이 비누, 스케이트, 저울, 삼양라면, 새우깡 등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물품과 구축함·장갑차·88전차(모형) 등 최초 국산 무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비전을 멀티미디어로 소개하고, 지난 53년간 한국특허 소사(小史)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특허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특허넷(Kipo-net)시스템(모형)도 선보이고 있다.

외국 지식재산권관에서는 주요국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그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영국여왕의 특허관련칙서(허위신청 등 특허제도 악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매조례(1624년)로 성문화됨), 미국의 최초 특

허중, 유럽 특허청 1호 특허공보 등 다수의 자료와 외국특허청 로고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제3관인 「전시관」에서는 대부분의 발명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발명의 날」, 「특허기술상」, 「학생발명전」 등의 수상 발명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에디슨관은 발명왕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축음기, 라디오, TV, 트랜지스터, 인쇄장비 등 160여점을 현재도 작동 가능한 발명 당시의 제품 그대로 전시하여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타 전시물품으로 반도체, 연대별 손목시계, 자기부상열차(모형), 보통 미꾸라지보다 수십 배 큰 슈퍼미꾸라지, 첨단약품 등도 전시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생성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한국형 원자로 영상관도 유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표관도 별도로 마련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 최장수 상표 등 다양한 상표 및 그 변천 과정에 대한 관람이 가능토록 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상표의 변화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제4관인 「미래관」 "사이버 사인(CYBER SIGN)"에서는 21세기 창조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오감체험·액체자석놀이 및 센서로봇 등을 통해 발명의 경이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장을 마련하여 누구나 꿈을 머금고 행동하는 창조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인의 전당」 개관으로 21세기 지식사회로의 변화의 물결을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에게 창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창조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발명과 창조의 실

체를 접할 수 있는 창조의 산 교육장으로, 또한 일반국민들의 생활 속의 창조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인의 전당개관식에 이어 정부대전청사 옥외에서 개관식참석 인사가 관전하는 가운데 약 20여분간 조선시대 발명무기인 신기전, 총통전 등의 발사 시연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조들의 발명무기의 위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시연회에 등장한 신기전(神機箭)은 조선 초기에 발명된 것으로 오늘날 다연발 로켓에 해당하는 당시의 대량살상용 첨단무기이다. 사용방법은 축 밑에 화약통을 달아 그 추진력으로 장거리에 이르게 하는 화살을 발사대인 화차(火車)에 장전하여 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대의 화차를 이용하여 신기전 100발씩을 장전하여 시연하였는데 그 위력은 대단하였다.

이어 시연된 총통전(銃筒箭) 역시 조선시대 초기에 발명된 화살무기로 오늘날의 대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통에 장전하여 발사하는 무기이다. 총통은 그 크기에 따라 천, 지, 현, 황으로 구분되며, 이날 행사에서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3문의 총통에 대형 화살인 총통전 2발씩을 장전하여 시연하였고, 임진왜란 당시 해주대첩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한 중완구라는 총통완구에 조선선조때 이장손이 만든 포탄인 비격진천뢰의 폭발장면도 장관을 이루었다.

전당 개관식과 발명무기 시연회에서 김수동 특허청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지식사회는 창조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발명인의 전당이 개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며, 국민 모두의 생활공간, 창조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